

‘명탐정 코난’ 마을 갈까 ‘센과 치히로’ 온천 갈까

내일투어 추천 ‘일본 소도시 여행’ 5곳

돗토리현, ‘코난 박물관’ 등 만화의 고장 마츠야마, ‘센과 치히로’ 도고온천 명물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라카와고도 가볼만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지로 가장 인기 높은 국가는 일본이다. 최근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인기도시를 섭렵한 여행객들 사이에 소도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직항편이 생기면서 교통이 편해졌고,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개성 넘친 관광데마가 매력이다. 자유여행 전문기업 내일투어는 올 일본여행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을 소도시 투어의 명소 5곳을 추천했다.

●명탐정 코난이 되어 사구를 찾아 떠나볼까?

돗토리현은 만화의 고장이다. ‘명탐정 코난’의 아오야마 고쇼, 요코만화의 대표작 ‘계게계의 기타로’의 미즈키 시게루가 이곳 출신이다. ‘코난역’으로 불리는 JR유리역을 비롯해 ‘코난열차’, ‘코난 박물관’이 있고, ‘요코 마을’로 불리는 미즈키 시게로 로드에는 요코동상, 요코신사, 캐릭터샵 등이 있다. 또한 시외로 나가면 높이 90m의 거대한 모래언덕, 사구를 만날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석 같은 마을

시라카와고는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골 마을이다. 이곳의 상징은 ‘갓쇼즈쿠리’라는 전통가옥, 겨울 폭설에 무너지지 않도록 가파른 경사로 만든 지붕이 마치 합장한 손을 연상시켜 붙은 이름이다. 시라카와고는 봄의 벚꽃, 여름의 푸르른 산, 가을 단풍, 겨울의 설경 등 사계절 풍광이 모두 빼어나기로 유명하다.

●일본 산악관광의 명소

다테야마 알펜루트는 해발 3000m급 봉우리가 즐비한 세계적인 산악관광 코스다. 도야마현의 다테야마역부터 나가노현의 오기자와역까지 버스, 로프웨이, 케이블카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대자연의 볼 수 있다. 4월 중순부터 6월까지의 ‘눈의 대계곡’이라 불리는 20m 높이의 설벽을 경험할 수 있다. 다테야마 로프웨이는 9월 단풍 명소로도 유명하고 미다가하라 산책 코스는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 풍광을 지녔다.

●우동 미식가행과 안도 타다오

가와현의 다카마츠는 우동의 본고장이다. 이곳 우동학교에서는 우동을 만들어 시식한 뒤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우동학교 출신 택시기사와 함께 우동 맛집을 돌아보는 우동택시도 인기다. 인근에 있는 섬 나오히마는 곳곳에 미술관, 예술작품이 있는데, 대표적



시고쿠의 온천마을 마츠야마에 있는 122년 역사의 도고온천. 일본이 자랑하는 산악관광의 명소인 다테야마 알펜루트의 대설벽. ‘명탐정 코난’의 만화가 아오야마 고쇼의 고향 돗토리에 있는 코난 캐릭터샵.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시라카와고도의 전경(윗 사진부터 시계방향)

인 것이 노란 호박, 빨간 호박이라고 불리는 작품이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지중 미술관도 빼놓지 말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그 온천

시고쿠에 있는 마츠야마는 자그마한 온천마을이다. 이곳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온천 모델이자, 1894년에 지어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도고온천이 있다. 마츠야마에서

기차로 30분 정도 가면 에도시대부터 목판(양초, 성냥 등)과 전통 장미를 생산해 온 우치코가 있다. 이곳 요카이치는 에도시대 상가와 민가를 그대로 보존한 거리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준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외국인 여행상품 ‘케이 트래블 버스’ 25일 시동

서울·대구·강원·전남 등 6개 노선 운행

정부가 외국인 자유여행객을 위한 전략상품으로 준비한 ‘케이 트래블 버스’(K-Travel Bus·사진)가 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방관광 활성화’와 ‘재방문을 제고’를 목표로 기획한 ‘케이 트래블 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방을 방문해 그 지역의 관광 명소와 콘텐츠를 쉽고 편하게 경험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운행 노선은 서울, 대구, 강원, 전남,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170달러(약 19만8000원) 내외의 요금에 왕복교통과 숙박, 현지 관광지와 체험 상품 요금, 전문 통역해설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됐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인 통영과 제천-무주 연합 코스를 이변 ‘케이 트래블 버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처음 공개한다. 출발 기준은 최소 4명이상이고 주 1회 6개 권역으로 동시에 출발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케이 트래블 버스’ 첫 운행 기념행사를 연다. 홍보대사인 배우 정일우와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하는 외국인 체험단 60명 등 1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안면경련 수개월 지속되면 ‘뇌신경 손상’ 의심

뇌신경 압박 분리하는 ‘미세혈관감압술’ 효과적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7) 씨는 얼마 전부터 간헐적으로 눈 밑에 경련 증상을 느꼈다. 평소 몸을 꼼짝이 아졌기에 인근 한의원을 찾았다. 원인은 면역력 저하로 생긴 눈 떨림이고, 한약, 전기치료, 침치료 등을 받았다. 치료받는 동안 증상이 호전돼 안심하고 치료를 멈췄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떨림증상은 나타났다. 이번엔 눈 밑 떨림뿐만 아니라 입꼬리까지 씹룩거리는 증상까지 함께 찾아왔다.

눈 주위의 근육 혹은 안면부위에 떨림 현상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에게서나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부분 휴식, 안정을 취하면 금세 사라지지만, 떨림이 수개월간 지속된다면 뇌신경의 손상에 의해 생긴 안면경련증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침, 약물, 보톡스 등을 이용해 치료하는데, 이러한 치료법은 안면경련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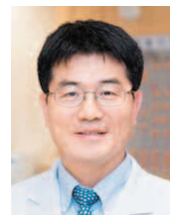
상을 잠시 멎게 해줄 뿐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있다. 빈번히 사용되는 보톡스 치료의 경우 얼굴근육을 마비시켜 얼굴의 떨림을 멎게 하는데, 간혹 보톡스 약물이 안면 신경에 잘못 주입이 될 경우 안면마비, 안검하수와 같은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뇌신경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분리해주는 외과적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것이 미세혈관감압술(MVD)이다. 미세혈관감압술은 뇌혈관질환 치료에 특화된 미세현미경을 통하여 압박받고 있는 안면신경근에 충격 완화 스펀지를 삽입해 분리시키는 수술법을 말한다.

수술은 미세현미경으로 실시간 관찰 치료할 수 있어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더욱이 귀 뒤쪽(1~2인치)을 작게 절개해서 미용 상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을 막아주는 것이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므로 피해야 하는 것이 좋다. 또 충분한 수면으로 휴식을 취하고 고른 영양소를 섭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방에 효력을 가진 식품으로는 제철 과일과 녹색 채소, 생선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식품들은 체내 폴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 반대로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이나 폴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식품은 소화장애를 부를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다. 강남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윤강준 원장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한남성 ★효과100%후불제★
미제품(30정) 정한동(30정) 은박(32정)
1회복용 5일지속 / 각종캡슐 동등 효소 쓰임없는강한발기
010-5906-0667

강한남자 ★효과100%★
*후불제. 탁월한효과. 강한발기/각종캡슐 도매가. 카드가 010-7600-4116